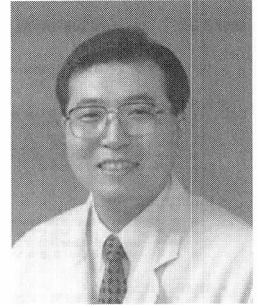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빠질까?



중앙한방병원 원장
임 장 신

공짜를 좋아 하면 머리가 벗겨진다는 속담이 있다. 대머리는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지만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두뇌활동이 왕성한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많다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두뇌작업으로 수입을 얻는 소위 “화이트칼라”들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도 있다.

탈모증, 즉 대머리에서는 병적 탈모증, 생리적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의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남성형 탈모증에는 청년형(또는 장년형)과 50대 이후에 전신 노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노인형 탈모증이 있다.

이 중에서 남성형, 특히 청년·장년형 탈모증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 변하여 모발 속에 피지와 함께 있어 모근을 약하게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탈모증이다. 이 경우를 흔히 남성 호르몬 과잉에 의한 대머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남성 호르몬의 과잉이 곧 정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은 빠지게 하지만 체모 등의 발육은 촉진하므로, 대머리이면서 가슴에 털이 많고 치모가 배꼽까지 올라와 있다면, 이런 남성은 정력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때 중국산 대머리 치료제가 세간을 흥분시켰 적이 있다. 모든 대머리 남성들의 마음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는 것을 보니 별로 효과는 없었나 보다. 실제로 대

머리는 치료가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최선책이겠다.

『대머리 예방의 다섯 가지 수칙』

- 첫째,** 모발 관리에 신경을 쓴다. 두피를 매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또는 옥수수 기름을 두피에 바르고 더운 타월로 습포한 후 창포나 상백피, 솔잎 따위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더욱 좋다.
- 둘째,** 식이요법으로 잣, 오이, 참깨, 호도, 소간, 계란, 우유, 해초류 등을 많이 섭취한다.
- 셋째,** 식이요법으로 염분, 지방분, 당분 등을 제한한다.
- 넷째,**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95%가 탈모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담배는 말초의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에 약하게 하며, 비타민 C를 파괴하여 탈모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 다섯째,** 약물요법으로 육미지황탕과 비타민제가 좋다.

※ 상담문의 : 032-5000-176 